

‘관찰하고 듣는 법’ 밝혀지니 관음이 시방세계에...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6〉 관세음 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㉔

이근원통 수행법은 북방불교권에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수행법은 티베트로 흘러들어간 밀교의 전통적 수행법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 일부가 염불의 형태로 변용돼 내려왔다. 이근원통 수행은 소리에 집중하고 다음은 듣는 단계로 접어든다. 처음과정이 끝나면 반문 문성의 과정으로 진입한다. 이번 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직접 자신의 수행법을 설명한다.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증득한 과정을 통해 이근원통 수행법을 접해보자. 〈편집자 주〉

14 무외공덕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듣는 성품을 혼숙하는 금강삼매의 무작묘력이, 시방삼세의 일체 6도중생과 동일한 비양(悲仰)이므로, 모든 중생이 저의 몸과 마음에서 열네 가지 무외공덕을 얻게 하였사옵나이다.

첫째는 저는 스스로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관자는 누구인가를 관찰하는 수행으로 저 시방의 고뇌하는 중생들이 일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음성을 관찰하여 해탈할 수 있게 하였사옵나이다.

둘째는 알고 보는 작용을 돌이켜 자성의 소리를 들어, 중생들이 큰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울 수 없게 하였사옵나이다.

셋째는 자성을 관찰하고 자성의 소리를 들어, 중생들이 큰물에 들어가더라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였사옵나이다.

넷째는 허망한 생각을 단멸(斷滅)하여 마음에 살해하려는 생각이 없어짐에 따라, 중생들이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도 귀신이 해칠 수 없게 하였사옵나이다.

다섯째는 망문(妄聞)을 혼숙하여 진문(眞聞)을 성취하여 여섯 감관을 소멸하고 근원을 회복하여 소리와 들음이 동일함에 따라, 중생들이 피해를 당할 지경에 놓일지라도, 칼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군사의 무기(兵戈)는 마치 물을 베는 것과 같고, 입으로 후우 불어 태양의 빛을 끄듯 하여, 성품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사옵나이다.

여섯째는 반문(反聞) 공덕이 지극하여 본원(本元)의 진정(眞精)으로 돌아가서 밝은 빛을 계발하여 법계에 두루 비추어 온갖 깊은 어둠이 제 성질을 전혀 지키지 못하게 하여, 야차·나찰·구반다귀·비사차·부단나 등이 가깝게 있을지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였사옵나이다.

일곱째는 소리의 동정(動靜)의 두 가지 성질이 원만하게 소멸하고 이근(耳根)이 청문성(聽聞性)을 관조하여 색 등 모든 허망한 경계가 소멸하므로, 그 중생의 몸에 구급하고 묶는 칼과 족쇄가 붙을 수 없게 하였사옵나이다.

여덟째는 소리를 멀하여 경계가 가로막지 못하니 듣는 성품이 원만하여 두루 사랑의 힘이 나오고, 그 중생들이 험한 길을 갈지라도 도적이 겁탈할 수 없게 하였사옵나이다.

아홉 번째는 듣는 본성을 혼숙하여 일체 경계를 벗어나서 환색(幻色)이 겁탈할 수 없게 하며, 음육이 많은 중생들을 애정의 탐욕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였사옵나이다.

열 번째는 소리가 순수하고 오염이 없어지고 근과

경계(塵)가 원만하게 융통하여 마주하는 자와 마주할 상대가 없어짐에 따라, 노여움과 원한(忿恨)이 많은 일체중생을 온갖 성냄에서 벗어나게 하였사옵나이다.

열한 번째는 망진(妄塵)이 소멸되어 자성이 본명(本明)을 되찾아 법계와 심신(身心)이 유리처럼 밝아져서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 어둡고 우둔하여 성품이 막힌 일체 아전가들을 어리석은 어둠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였사옵나이다.

열두 번째는 수행으로 도리를 증득하여 4대(四大)의 환형(幻形)을 녹여 융화하고 참된 하나의 문성(聞性)으로 되돌려 동요하지 않는 불생명의 이체(理體)에 중입(證入)하고 일신(一身)으로 무량신(無量身)을 드러내어 삼세간에 섭입하나 세간의 모양은 깨뜨리지 않으며, 시방세계에 임하여 먼지처럼 많은 부처님의 곁에서 범왕자를 위해 공양하며, 자식이 없어서 남자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 아기를 탄생하게 하였사옵나이다.

열세 번째는 육근을 원용하게 통달하여 차별 없이 밝게 비추고, 시방세계를 머금고 대원경지와 공여래장을 세워서,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여래의 비밀법문을 받들어 순종하고 받아들인 법을 잃지 않음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여자 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단정하고 복덕을 갖추고 유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잘 생긴 여자아기를 탄생하게 하였사옵나이다.

열네 번째는 이 삼천대천세계의 백억 일일에서 현재 세간에 살고 있는 62간지스 강의 모래 수처럼 많은 범왕자들이 법을 닦고 모범을 보여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으나, 중생의 근기에 따르는 방편과 지혜는 각기 다릅니다. 제가 얻은 원만하게 통달한 근본감관(本根)의 경우에는, 묘한 귀의 문성(耳聞)을 연 뒤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법계를 두루 머금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의 공덕을 저 62간지스 강의 모래 수처럼 많은 범왕자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중생의 공덕과 비교해도, 두 사람의 복덕은 동등하여 다르지 않게 하였사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나의 한 이름의 공덕이 저 수많은 이름의 공덕과 다르지 않은은 제가 수행하여 진실하고 원만한 통달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생들이 복을 갖추도록 베푸는 열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힘’이라고 하옵나이다.

4부사의무작묘덕(四不思議無作妙德)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원만한 통달법을 얻고 더 없이 높은 도를 닦아 증득하였기 때문에, 또 네 가지



그림 · 최주현

“
금강삼매 묘력으로 14공덕 증득
자재한 마음에 삼마제 얻어
관세음 수기받고 시방세계 밝히니
한 이름의 공덕, 수 많은 공덕과 같네
 ”

부사의한 무작묘덕(無作妙德)을 잘 성취할 수 있었사옵나이다.

첫째는 제가 처음에 이문삼매(耳聞三昧)를 얻어 묘한 중의 묘한 듣는 마음을 얻고, 마음이 정밀하여 허망한 듣는 작용을 버리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이 모두 가로막히지 않게 되어, 원만하고 융통하고 청정하고 보배로운 깨달음을 성취하였사옵나이다.

따라서 저는 뜻대로 여러 가지 묘한 용모를 나타내어, 한없는 비밀신주(密神呪)를 마음대로 설하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런 가운데 한 머리 세 머리, 다섯 머리 일곱 머리, 아홉 머리 열 한 머리에서, 이렇게 백 팔 머리 천 머리 만 머리, 팔만 사천 금강머리(金剛羅首)를 나타내기도 하옵고, 두 팔 네 팔, 여섯 팔 여덟 팔, 열 팔 열두 팔, 열네 팔 열여섯 팔, 열여덟 팔 스무 팔에서, 스물네 팔까지, 이렇게 일백 팔, 팔천 팔, 만 팔, 팔만 사천 무다라팔(毘陀羅臂)을 나타내기도 하옵고, 두 눈 세 눈, 네 눈, 아홉 눈에서, 이렇게 백팔 눈, 천 눈, 만 눈, 팔만 사천 청정한 보배의 눈(淸淨寶)

目)을 나타내기도 하옵고,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위엄으로, 때로는 선정으로, 때로는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여 보호하는 데에 뛰어난게 자재한 능력을 얻었사옵나이다.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지혜로 여섯 경계를 벗어 나옴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도 장애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묘하게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가지가지 주문을 설할 수 있사옵고, 그 형상과 그 주문은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법을 잘 베푸는 것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국토에서는 저를 ‘두려움이 없는 법을 베푸는 자’ 라고 부르옵나이다.

셋째는 제가 본래 묘하고 원용하게 통달하여 청정한 근본 감관을 닦았기 때문에, 유행(遊行)하는 세계마다 중생들이 몸에 지닌 진귀한 보배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서 저에게 가없게 여겨 구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옵나이다.

넷째는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얻고 구경법을 증득했기 때문에,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로 시방 여러래 공양하게 되었사옵고, 한편으로는 법계의 육도중생이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자식을 원하면 자식을 얻게 하며,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긴 수명을 원하면 긴 수명을 얻게 하며, 이와 같이 또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옵나이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저의 경우로는 이문(耳門)에서 원만하게 비추어 밝히는 삼매 반연하는 마음(緣心)이 자재하고, 그 자재한 마음으로 흐르는 모양을 거슬러 올라가서 삼마제를 얻고 보리를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난다고 생각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저 관음 여러께서는 ‘원만하게 통달하는 법문을 훌륭하게 얻었다’고 감탄하시며, 큰 법회에서 저를 수기하시어 관세음의 이름을 내려주셨사옵나이다. 그래서 저의 관찰하고 듣는 법이 시방에 원만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관음이란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알려진 것이옵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사자좌에서 온몸(五體)으로 똑같은 보배의 광명을 내셔서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여래와 범왕자와 보살들의 이마를 비추셨으며, 저 모든 여래께서 온 몸으로 다 같이 보배의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은 미진 세계를 지나 부처님의 이마를 비추고, 아울러 법회의 뛰어난 보살과 아라한들을 비췄다. 그러자 숲과 나무와 못과 시냇물들이 법을 설하였으며, 교차된 광명은 서로 짜여 보배 실그물처럼 어우러지니, 대중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보면서 모두들 널리 금강삼매를 얻었다. 즉시 하늘에서 온갖 보배의 연꽃이 비 오듯 내리니,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하얀색이 사이마다 섞이고 현란하게 조화되어 시방허공은 온통 일곱 가지 보배색으로 변했다. 이 사바세계의 대지와 산과 강은 동시에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국토가 합쳐서 하나가 된 세계만 보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범패(梵唄)와 영가(詠歌)의 소리가 들릴 뿐이다.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친견해서 차 한잔만 마셔도 말기암, 병의, 난치병 등 일체 고통들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 강의교재는 화엄경수행센터의 회주인 진귀 수행자가 출판한 화엄경 책으로 강의하며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천도재 등 일체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 잔의 친견만 합니다.

■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통이 사라진 사례자들의 동영상 및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1899-9532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강의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강의교재는 화엄경수행센터의 회주인 진귀 수행자가 출판한 화엄경 책으로 강의하며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천도재 등 일체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 잔의 친견만 합니다.

■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통이 사라진 사례자들의 동영상 및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1899-9532

2559년 석가탄신기념 능인계향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계향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에 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한정특가로 공급됩니다. **1차분 전량 매진!**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분 순차 발송중입니다.**

■ **한정특가 : 15,000원**
 (초파일 이후 정상이 30,000원으로 환원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될 수 있습니다.)

능인향당 051)746-6818 / 02)3663-6777
www.nihwa.com 홈페이지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